

# 북

## 칸 레드카펫 위 스타들 살해당하다

승자는 혼자다 (1·2)

파울로 코엘료 지음·임호경 옮김



과연 이 시대의 승자는 누구이며 어떤 모습일까?

파울로 코엘료(62)의 소설들은 항상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삶은 무엇인가. 당신은 무슨 꿈을 위해 사는가. '순례자'부터 '연금술사' '11분' 그리고 최근작 '포르토 벨로의 마녀'까지 그는 삶 위에서 갈 곳 몰라하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위로해 왔다.

코엘료의 2008년 신작 장편소설 '승자는 혼자다'(전 2권)가 출간됐다. 이번 소설은 지금까지 그의 소설기법이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칸 영화제라는 소설의 배경부터가 과격적이다. 작가는 그의 단골 메뉴인 '우화적 잠언 스타일'을 과감하게 던져 버린다. 기법 면에서도 속도감 있고 빠른 전개가 눈에 띈다.

무대는 전세계 스타와 엔터테인먼트계의 큰손들이 몰려드는 칸 영화제. 럭셔리하고 화려한 칸 영화제를 배경으로 24시간 동안 벌어지는 살인 사건이 주제이다.

살인범은 러시아 이동통신회사 회장인 이고르. 그는 빙손으로 시작해 세계적 기업가로 성공했지만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인물이다. 젊은 시절 그와 꿈을 나눴던 부인 애바는 이런 이고르가 두려워 떠나고 세계적 디자이너인 하미드 후세인과 재혼을 한다.

애바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이고르는 애바를 끌어안고 오고 "네가 떠나면 세상을 모두 파괴하겠다"던 자신의 평소 말을 실천이라도 하듯 애바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남겨가면서 거리에서 수공예품을 파는 젊은 여자를 시작으로 영화계의 큰손, 영화제작자, 대스타들을 차례로 살해해 나간다. 오직 한 가지 그녀에게 경고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전 참전 군인 출신인 그는 감쪽같은 솜씨를 자랑하고, 경찰들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이를 향해 목을 죄어간다. 이 같은 이고르 앞뒤로 슈퍼클래스와 슈퍼클래스를 열망하는 인물들이 등장해 얹혀 들어간다.

중동의 직물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된 하미드, 배우 지방생으로 칸에서 전격 캐스팅된 스물다섯 살의 가브리엘, 열아홉 살의 슈퍼모델 재스민, 내리막길에 들어선 데일리스타...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을 지배하는 권력자, 슈퍼클래스. 작가는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이고르라는 인물의 왜곡된 시선을 통해 영화제에 모여든 다양한 군상을 낭滟하고 치밀하게 그려낸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작가는 이처럼 상류층과 영화계, 패션계 등 화려한 세계 뒤에 숨겨진 지독

한 환멸과 쓰디쓴 낙담을 그려낸 이유는 무엇일까?

작가는 지난 4월부터 가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의 국내 독자들과의 온라인 만남을 통해 그 답을 던지고 있다.

작가는 "이번 책에서는 사람들의 꿈이 어떻게 조작되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망가져 되는지를 살펴보고 싶었다"며 "진정한 승자는 자신의 꿈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고, 타인을 위해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형식과 내용은 달라졌지만 작가는 추구하는 삶의 희망과 사랑노래'라는 본령은 변하지 않은 듯하다. '희망'이라는 실마리를 남겨 둔 것이다.

작가는 화려한 세계 속에서도 사랑과 진실을 지켜내는 재스민을 통해 흔한 세상에서도 자신의 좌표를 잊지 말라고 전달하는 것. 작가는 "그녀를 현실과 환상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으며 '꿈의 공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유일하게 성공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동네·각권 1만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야생초와 나무 792

약용식물 종정리



우리 땅에서 나고 자라는 야생초와 나무를 간략하게 정리한 핸드북 '야생초와 나무 792' 1·2권이 나왔다. 산과 들로 여행을 다니는 이나 약용식물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책이다.

약용식물 관리사업회에서 약용식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진해 씨가 쓴 이 책은 1권에 3~5월에 개화하는 야생초와 나무, 그리고 재배식물을, 2권에는 6~12월에 개화하는 야생초와 나무, 포자식물로 나눠 총 792종을 수록하고 있다. 직접 찍은 컬러 사진과 학명, 생약명, 생태와 분포, 유독 및 약용 등 각 식물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맑은소리·각권 2만3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창조의 제국·처음 만나는 그림  
이탈리아… 미술여행을 떠나다



영국 현대미술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책부터 잘 알리지 않은 서양미술 화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책까지 미술 감상의 폭을 넓히는 다양한 미술 관련 책들이 잇따라 나왔다.

'창조의 제국'(지안·2만7천500원)은 이른바 'yBa'(young British Artists)를 필두로 성장하고 있는 영국 현대미술의 과거와 오늘을 소개하는 책이다.

yBa의 산실이었던 영국 골드스미스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현재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임근혜 씨는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yBa 등장 이전의 1980년

## 영국·이탈리아 미술세계로 '풍덩'

대 미술사적 상황을 짚은 뒤 yBa의 등장 배경, 주변 미술계 상황까지 살핀다.

또 2000년 개관 이후 대번에 관광 명소로 떠오른 테이트모던 미술관을 비롯해 1998년 디 죽어 가던 영국 북동부의 탄광촌 게이츠헤드를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로 변신시켰던 '북방의 천사' 조각상 등 영국 현대미술의 오늘을 보여준다.

'처음 만나는 그림'(아트북스·1만6천원)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레스카페'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 선동기씨의 그림 이야기다.

책에는 대부분의 미술 관련 책들에 단골로 소개되는 유명한 작가들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프레더릭 레이턴이나 장 베로, 프레데리크 바지유 같은 19~20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낯선 화가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저자는 낯선 화가들의 일생을 간단히 소개한 뒤 화가별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 5점씩을 골라싣고 그 그림들에 대해 친절한 설명을 덧붙인다.

미술사학자 고종희씨는 '이탈리아 오래된 도시로 미술여행을 떠나다'(한길사·1만7천원)에서 제복 그대와 오랜 역사를 지닌 이탈리아 각 도시의 미술작품과 건축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탈리아에서 미술사를 공부한 저자는 로마·밀라노·파리에·베네치아처럼 유명한 도시에 있지만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중요 건축물과 미술관, 미술관의 소장 작품들을 소개하는 한편 만토바나 우르비노, 라벤나, 베로나, 파도바, 시에나, 아시시 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중소도시의 미술품들까지 꼼꼼히 소개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쟁의 집=미국의 패권주의와 미국이 세계 각국에서 일으킨 전쟁에 대해 다뤘다. 책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 된 웨타코를 '전쟁의 집'이라 이름 짓고, 전쟁을 기획하고 실행한 웨타코 사람들, 2차 세계대전 이후 웨타코와 미국의 패권주의가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미쳐 왔는지 시대 순으로 주제했다.

〈동녘·3만2천원〉



▲나의 집을 떠나며=소설가 현길언씨가 16년 만에 펴낸 신작 단편집. 지금까지 꾸준히 발표해온 '관계' 연작, 그중에서도 '가족의 내적 의미'를 성찰과 허위를 고발한 단편 4편과 중단편 1편을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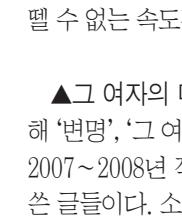
표제작인 '나의 집을 떠나며'는 가족 간에 깊게 파인 애증의 꿈을 다른 작품으로 가족 해체 현상 속에 깔린 존재론적 원인을 파고 들고 있다.

〈문학과지성사·1만원〉



▲중국을 놓은 뽕나무='차이나'의 유래를 뽕나무에서 찾는 강관관 계명대 사학과 교수가 중국 문명을 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비단'에 집중했다. 비단은 단순히 의복 소재가 아니라 중국의 이미지자 동시에 동서무역의 기폭제, 경제적 기반이었다는 전제 아래 훤칠하는 뽕나무 문화사라 할 수 있다.

〈글향이야기·1만9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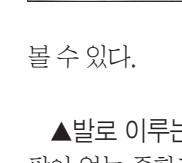
▲히틀러의 1968년 사진 한 장·역사상 가장 거대한 속임수의 재구성=스페인 최고 역사소설상을 수상한 작가 휠리오 무리요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였던 히틀러의 죽음을 들려싼 역사의 이면을 충실히 자료조사와 풍부한 상상력으로 완벽하게 재구성해냈다. '히틀러 미스터리'를 한 편의 긴박한 스크리너 영화를 보는 듯, 눈을 뗄 수 없는 속도감으로 쏴내려갔다.

〈웅진지식하우스·1만3천원〉



▲그 여자의 미흔일곱 마흔여덟=1984년 '문예중앙'을 통해 등단해 '변명', '그 여자, 무희' 등의 소설을 쓴 정길언씨의 신작 에세이집. 2007~2008년 작가가 마흔일곱과 마흔여덟이라는 나이를 지나면서 쓴 글들이다.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와 내밀한 개인사부터 한국 사회 상황 등까지 중년을 지나며 겪고, 느낀 것들을 섬세하게 풀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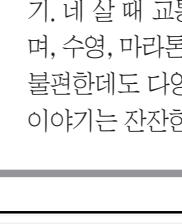
〈문화의문학·1만원〉



▲자전거로 나를 세운다=자전거 하나로 4년간 6대륙, 50개국, 4만 1444km의 세계일주를 마친 평범한 젊은이 스콧 스톤의 이야기를 담았다.

여행 중에 만난 이들에게서 받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왜 자전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니?'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종교나 사랑에 대한 물음까지 다양한 내용을 만나 볼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사·1만4천800원〉



▲발로 이루는 꿈=인터넷·TV·신문 등에서 큰 화제가 됐던 두 팔이 없는 중학교 영어 교사 고지마 유지(29)의 감동스런 인생 도전기. 네 살 때 교통사고로 두 팔을 잃고 모든 일상생활을 밟아 해결하며, 수영, 마라톤, 배낭여행 그리고 교사임용시험에 이르기까지 몸이 불편한데 다양한 일에 도전하고 마침내 바라던 교사의 꿈을 이룬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부글·1만3천원〉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현장시찰을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주택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시설/상가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층수 간접가 최저가 비고

월드풀 대100, 건321 2억7천 1억5천 7억500만

월드풀 대163, 건259 7억1천 4억 4층사무

솔루션 대2354, 건99 13억3천 3억8천 미니골프장

솔루션 대730, 건1163 67억3천 37억7천 자동차세입장

솔루션 대102, 건422 13억 4억6천 6층빌딩

솔루션 대802, 건1387 64억8천 18억5천 8층빌딩

솔루션 대211, 건606 19억3천 10억8천 8층오피스텔

솔루션 대1089, 건3334 113억 61억 7층오피스텔

솔루션 대190, 건767 23억 10억3천 10층오피스텔

솔루션 대223, 건943 25억8천 22억8천 7층 빌딩

솔루션 대141, 건820 37억4천 21억 종합이용호텔

솔루션 대53, 건193 4억2천 1억8천 6층상가빌딩

솔루션 대167, 건288 28억5천 12억7천 자동차세입장

솔루션 대1901, 건1820 68억8천 24억 6층오피스텔

솔루션 대363, 건433 16억7천 13억3천 2층 건물

아파트/빌라

대표이사 010-2611-5598

주택/개발

경인사 010-5678-0005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층수 간접가 최저가 비고

월드풀 대154, 건420 14억 7억4천 6층모텔

월드풀 대99, 건245 14억4천 8억 7층모텔

솔루션 대89, 건138 31억9천 17억5천 8층모텔